

1분기 내수경기 지역별 격차 심화

제주 웃고 울산·경남 울고

제주, 관광·부동산 경기 호황... 울산·경남 기업 구조조정 영향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소비가 4.5% 서비스업 생산이 2.8%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소비가 10% 이상 늘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은 증가율이 제주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1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10.4%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6.2%를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23.7%) 슈퍼마켓·편의점(+11.2%) 승용차·연료소매점(+4.0%) 전문소매점(+2.7%) 등 모든 유통 업종에서 판매가 늘었다.

또 서비스업종의 경우 부동산 임대(+18.7%), 금융·보험(+11.9%), 도소

매(6.3%) 등의 생산 증가율이 높았다. 제주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숙박·음식점업(+4.0%) 생산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주 지역은 관광객 증가, 인구 증가, 부동산 시장 활황세 등에 따라 지난 분기부터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조정의 여파로 울산과 경남의 내수 경기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경남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5.6%에서 올해 1분기 1.0%로 급락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울산 역시 증가율이 4.8%에서 1.1%로 떨어지면서 15위로 처졌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경남(3.3→2.3%)과 울산(3.4→2.0%)은 모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울산 지역은 자동

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업종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모습"이라며 "경남의 경우 불명, 거제, 고성 등의 지역에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울산과 경남 뿐 아니라 영호남 전 지역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소매판매 +1.9%, 서비스업 생산 +1.8%), 대구(+1.4%, +2.0%), 부산(+2.5%, +2.0%), 전북(+2.2%, +1.7%), 전남(+2.6%, +2.2%), 광주(+1.7%, +2.0%) 등의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반면 서울(소매판매+4.4%, 서비스업 생산 +2.5%), 경기(+4.4%, +2.9%), 인천(+3.5%, +2.5%), 충남(+5.2%, +2.6%), 충북(+3.2%, +3.0%), 대전(+2.6%, +2.9%), 강원(+3.8%, +3.0%) 등 중부권 지역들은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인진수 기자



프리미엄 와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와인매장에서 모델들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흡연자 25% 담배 끊고 줄여

가격 인상 정책효과 거둬

2015년 담배값 인상 후 흡연자 4명중 1명이 담배를 끊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5년 담배값 인상 전후 흡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는 70.2%, '흡연자'는 28.8%로 분석됐다.

담배값 인상 전 비흡연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있었던 응답자는 24.0% 정책효과가 없었던 응답자는 75.4%로 조사됐다. /인진수 기자

흡연자 4명중 1명은 담배값 인상 이후 흡연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7.9%)에서 담배값 인상의 효과가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30.6%), 20대(24.9%), 30대(21.0%), 40대(14.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다 /인진수 기자

신보, 중기금융 국제포럼 첫 개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금융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연설자들은 한결 같이 신용보증제도는 '금전적 수익(monetary revenue)'보다는 '경제적 수익(economic revenue)'을 고려

하는 성과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다짐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비전목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부서간 협업 업무협약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중대)은 12일 신시33센터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6년 사업단장 업무협약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단 홍성명 기반 조성본부 이사 주재로 기술안전품질원장과 6개 부서 사업단장, 각 부

장들이 참석하여 사업단별 중점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안사항을 토론했다.

박중대 단장은 내년 준공을 앞둔 농생명용지5공구 및 내부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산업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전북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전주 롯데백, 15일까지 열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전북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오는 15일까지 1층 이벤트 매장에서 진행한다. 직거래 상품은 딸기(1kg) 5,500~7,500원, 완숙 토마토 (5kg) 7,000 ~ 10,000원, 연근(1kg) 5,000원 등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참여유한우를 비롯하여 풍년제과 우리밀 수제 초코파이 등 전라북도 우수산품을 직거래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했다.

또한 로컬푸드 신선식품으로 즐기는 월남쌈 체험과 다문화 파티시에와 함께하는 컵케이크 체험 등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고객께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문준오 식품팀장은 "전북도의 우수산품이 전국적으로 뿔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방침이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한국무역협회, 애로사항 청취 위한

전북 농생명 산업계와의 간담회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에서 '전북 농생명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과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하림, 프랑스 에코서트 인증 편백오일을 생산하는 에이플러스이로마, 천연마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생산하는 바이허브를 포함해 전북의 농생명 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곽의상 전북 기업협회의 부회장 김동규 전북 농식품산업과장, 노학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장, 전원찬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한두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련 수출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 판로개척에 애쓰고 있는 전북 농생명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9개사 대표들은 삼계탕 수출 출고 전 국내 세균 배양검사 생략 및 기능성 화장품의 광고 비용 확대 등을 김 부회장에게 요청했다.

김정관 부회장은 "사업에 빠른 정보공유와 이를 토대로 한 문제해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제기된 전북 농생명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 마련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 육성 창업자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천변 징검다리마켓' 31일까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천변 징검다리마켓'의 창업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천변 징검다리마켓'은 짜잔다리~매곡교 사이 가설점포 중 빈 점포 18개동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분야 창업자를 육성 생계형 시장 속에 예술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직접 생산한 문화·

예술관련 상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소규모 창업자 또는 팀이다.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8개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창업자는 리모델링 공사를 6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7월부터 입점해 본격적인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징검다리 마켓을 통해 아재가게

옆에 아재 그림 열서, 생선가게 옆에 물고기 도자기 등 시장과 어울리는 친근한 일상예술품을 기대한다"며 "한옥마을과 연계해 필수 관광코스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독특한 특색을 만들어갈 의지를 가진 문화·예술 분야 창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 (063-717-1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16~20일 안전훈련 실시

지진·터널 화재 대피 등

익산국토청이 인건문화 확산과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16~20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익산국토청을 비롯한 4개 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한 대피훈련과 도로터널내 차량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점검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장 대응훈련은 오는 20일 전북 정읍에 위치한 국도30호선 항가터널에서 소화재사고를 가정해 실시하며, 훈련은 사고접수와 상황전파, 교통통제,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원상복구, 차량통행 재개 등 전 과정이 골든타임(30분) 이내에 처리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훈련은 국도 등에서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익산국토청은 실제 상황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호남 지역 국도를 더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